

李 炳 漢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 I. 어학능력과 학문연구 수행능력

대학원 과정은 독자적 학문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앞으로의 학문연구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의 학습노력도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어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과연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학문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우선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전공분야와 관련된 외국어의 활용능력을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그만큼 학문연구의 시야가 넓고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뜻에서도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나 논문 제출 자격고사에서 외국어 과목을 부과하는 것은 학문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긴장을 유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잡은 시험으로 인하여 전공분야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사실의 본말을 혼동한 데에서 연유되는 결과이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를 자르기 전에 톱날을 세운다”, “하늘이 장차 그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있어 먼저 그 사람의 근골을 단련시킨다”는 격언도 있거니와, 대학원생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장차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작업을 수행해 나갈 때에 있어 그에 필요한 외국문헌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대학원과정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전히 기초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학문연구에 뜻을 두고 대학원과정에 진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스스로 관련 외국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생활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외국의 문헌자료를 일체 보지 않고 훌륭한 연구성과를 거두기란 매우 어려우며, 설혹 일정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여도 이를 한글로 적어 외국의 학자들이 고루 읽어주기를 바라고 세

계의 모든 학자들이 한글로 논문을 써주기를 바란다든 것은 더더구나 바라고 어려운 일이다.

## II. 한문의 효용성

한자나 한문은 그것이 비록 중국인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중국으로부터 전하여진 것이라고는 하나, 수천년 내려오는 사이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쳐 깊숙히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미 그것을 외국문자 또는 외국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말 우리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문학,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외교사, 법제사, 교역사, 경제사상사, 과학사, 건축사, 고고미술사, 복식사, 문화사 등 학술문화 전반에 걸쳐 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한자나 한문의 학습은 필수적이며, 학문연구에 있어서의 도구언어로서도 그 효용성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현재 인문사회계 일부에만 개방되어 있는 것을 대학원 전공정 전 영역에 걸쳐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자문화권’ 국가로서의 이점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노자의 사상체제에서 시사를 받고, 루소의 사상이 성리학파 관련이 있음직하며, 에즈라 파운드의 시세계가 다분히 동양적 분위기에 젖어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학술연구 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한문으로 된 문헌자료가 절대다수이다. 이들을 모두 한글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기억력이 좋고 정열이 왕성할 때 이를 배워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 III. 10억 인구의 상용어로서의 중국어

중국어는 전세계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10억의 중국인이 상용하는 언어인 동시에 국제기구에서의 공용어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정치외교, 군사, 지리, 상업, 경제 제면에 걸쳐 우리와의 관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밀접하며, 지정학적인 거리로 보아도 우리와 가까운 강대국이다. 그러므로 중국어는 실용적인 가치면에서도 우리에게 는 그 비중이 큰 외국어이다.

중국을 알고, 그들과 상대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중국어의 학습은 다른 어느 외국어 못지 않게 권장되어야 한다. 이웃인 중국인과 마주하여 제 3국 언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현실적인 수단으로도 적절치 못하다. 한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전 과정 전영역에 걸쳐 그 선택이 개방되어야 한다.

#### Ⅳ. 현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제언

대학원 과정에서의 현행 외국어시험제도에 대하여 이를 대폭 변경하거나 그것의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견해는 현행 제도가 그동안 거두어 온 긍정적 성과를 도의시한 과민반응 내지는 퇴영적 발상의 느낌이 없지 않다.

일정한 제도나 규범은 그 사회의 현실적 수요나 문화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와 다른 역사배경 또는 현실여건을 지니고 있는 외국어 제도를 피상적으로만 관찰하고 이를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즉각 모방답습하려 해서는 안된다. 교육제도의 급격한 개폐는 대상인원의 수가 많고 또한 그 충격효과가 매우 클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실험기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계속적인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현행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견해를 적어보기로 한다.

① 일반적으로 외국어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학문연구 전 영역을 통하여 그만큼 성취도가 높다. 이점을 감안하여 입학시험 때 외국어과목 점수를 전공과목 점수와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함이 바람직하다. 외국어 권장의 전향적 효과도 기대된다.

② 본교출신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부 재학기간중에 대학원 입시에서의 외국어 과목과 대체가 인정되는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입시에서의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해당 과목의 학점 가산 여부도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대체인정 과목은 그동안 출제·채점을 담당해 온 본교의 외국어문학과에서 미리 이를 선정 공시토록 한다. 타대학 출신은 입시에 응하도록 한다.

③ 논문제출 자격시험도 ②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입시에서 9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이를 면제한다.

④ 외국어의 어휘지식이나 활용능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학문연구를 위한 긴장이나 의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에서 박사과정 진입시에도 외국어시험을 과하도록 한다. 단 본교 석사과정 이수자의 경우 ②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과정 이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어학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입시·논문 제출 자격시험에서의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이송하고 응시자에게는 확인증을 교부한다. 단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⑥ 제1, 제2 외국어의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외국어군에서 응시자가 2종

의 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⑦ 학문연구 영역의 폭을 넓히고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국학, 동양학분야 전공자가 서양어를, 서양학분야 전공자가 한문, 중국어를 선택하였을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 〈討 論〉

### 양철학(자연대 화학과)

- 석·박사 과정이 통합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외국어고사 합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의미
- 합격선은 40점으로 유지해야 하며, 입학사정시 총점기준으로의 전환에는 반대
- 영어시험 개선안
  - ① 시행 : 석·박사과정 입학시험(2회)
  - ② 내용 : 기초공통부문과 전공부문으로 구분하되, 필기시험과 함께 청취시험도 시행
- 제 2 외국어(자연계열의 경우) 개선안
  - ① 시행 : 박사과정 입학시험
  - ② 과목 : 제 2 외국어군에 프로그래밍언어 포함
  - ③ 대체방안 : 석사과정 재학시 대체과목을 신청하여, B 학점 이상이면 박사과정 입학시험시 제 2 외국어 시험 면제
- 관계 법령의 개선으로 자격고사 폐지도 고려
-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군의 확대
- 가치 “대학원 연구능력 적성고사” 개발 시행에 찬성(단, 수학도 포함)

### 윤계섭(경영대 경영학과)

#### —문제점

- 현행제도 운영상의 획일성
-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군의 제한
- 행정편의에 치중

#### —개선안

- 입학시험 과락기준 상향조정과 자격시험 면제
- 기초공통부문과 전공부문의 구성비는 80 : 20에서 50 : 50으로 조정(전공부문의 경우, 전공용어상의 문제점 고려)
- 외국어군에 프로그래밍언어 포함
- 어학과 함께 수학 및 통계학도 시험과목에 포함